



제목	British Imperialism in Qajar Iran: Consuls, Agents and Influence in the Middle East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I.B.Tauris
발행일	2017. 4. 28.
저자	H. Lyman Stebbins
출판국가	영국
페이지수	304
ISBN 또는 ISSN	978-1784535025

내용 요약

이 책은 1889년에서 1921년까지 영국이 국제적인 경쟁 속에서 이란에 영국 제국주의를 발전시키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글이다. 영국의 이란 지배는 인도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과 카자르조의 허약성에서 자극을 받았다. 1888년에 4명의 이란 주재 영국 영사가 있었고, 1921년에는 그 수가 23명으로 증가하였다. 영국-이란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런던, 테헤란, 캘커타를 연결하는 고도의 외교적 접근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 책은 영국의 영사와 정치인들이 카자르 시기 동안 남부 이란을 영국의 권력과 영향력을 실현하는 중심지로 만드는 과정을 탐구하였다. 영국, 이란, 인도는 영국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통제를 받는 식민지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저자는 결론 부분에서 카자르 시대 영국 영사와 정치 관료들이 영국 제국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페르시아만의 영국 해군력의 지원을 받아 남부 이란을 근거로 인도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였다. 또 그들은 남부 이란에 행정적, 재정적, 정치적, 군사적 지배권을 행사하였다. 1907년 영국-러시아 협정으로 이란 북부에 러시아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남부 이란에는 영국의 영향력이 강화된 것이다. 이란에서 영국과 러시아 제국주의는 카자르 정부의 위신을 약화시켰다. 카자르 시대는 지방분권적이었고, 귀족과 국왕 간의 느슨한 합의에 의존한 반면 팔레비 시대는 강력한 중앙집권화, 근대적인 징집 군대, 거대한 관료조직 등을 이룩하였다. 1979년의 혁명으로 왕조적인 권위주의가 폐지되었지만 이슬람 공화국은 팔레비 시대의 중앙집권화를 포기하지 않았다.